

‘공약 이행’ 조오섭·서삼석 광주·전남 1위

●법률소비자연맹, 21대 국회의원 전수조사

조오섭 “지역과 민주당에 헌신과 약속 다했다”
서삼석 “끊임없이 현장이야기 듣고 보완할 것”



조오섭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12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 공약 이행 성적 평가’ 결과, 각각 광주 1위와 전남 1위를 차지했다. 전국 27개 시·도별 1위를 차지했다. 전국 27개 시·도별 1위를 차지했다. 전국 27개 시·도별 1위를 차지했다.

를 조사·확인·분석하는 평가 작업을 거쳐 유권자 정보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성적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돼 있는 선거공보에 포함된 선거 공약 1만 6천416개를 대상으로 했다. 또 언론 보도 내용, 국회의원 홈페이지·블로그 공개 자료, 의정보고서 등 입수 가능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조사·분석·평가했고 지난 2월 공문을 통해 증빙자료 및 소명기회 절차를 거쳤다.

이와 관련, 광주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한 조오섭 의원은 “2년 연속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4년간의 선거공약 이행 성적 평가 결과 광주 1위에 선정됐다”며 “지역민과 민주당을 위해 헌신을 다했고 약속을 지켰던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한 서삼

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례법안 제정 ▲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발의 ▲협치모델 구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산림공약형직불제 도입 ▲공약형 수산직불제 활성화 등 주요 공약들이 이행 완료됐다고 평가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이미 완료됐다고 평가받는 공약일지라도 끊임없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진행 중인 지역 사업에 박차를 가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평가”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5·18 왜곡’ 도태우 공천 취소 요구 확산

민주당 광주시당·광주시의회·오월어머니집 성명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도태우 예비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도태우는 5년 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며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고 ‘5·18을 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허구적 신화에 가깝다’고 막말을 퍼부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복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거나 찬성했다”며 “앞으로는 5·18 헌법 수복을 이야기하고 뒤로는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북한 개입설 등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한 자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도태우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오월어머니집도 성명을 내 “도태우 변호사는 5·18역사왜곡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국민을 대변해 국회로 갈 사람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도태우의 공천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강 기자

전남도의회 “목포해양대·목포대 통합해야”

축구 결의안 채택...목포해양대·인천대 통합 추진 비판

전남도의회는 12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최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추진 축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역 핵심 대학인 목포해양대와 인천대의 통합안은 지역 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와 전남도의 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목포해양대와 목포대학교 통합을 촉구했다. /김재정 기자

도의회는 또 “목포해양대가 인천대 와 통합을 추진한다면 글로벌대학30이나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원지원체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목포대와 통합을 통해 양 대학을 포함한 전남 서남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9일간의 일정으로 제37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회기 동안 류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모사업 유지 및 관리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행복시대 실현’ 향우들과 손잡았다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협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식 행사에서 향우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1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식을 하고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시도민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시도민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광주전남시도민회 간 상생 협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립 의과대학 설립 및 조강래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등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 공동 노력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협력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100만명 조기 달성을 위한 1촌 맺기 캠페인 동참 ▲고향 사랑기부채 정착 적극 지원 등이다. 광주전남시도민회는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및 전국체전 등 전남도에서 열린 크고 작은 행사마다 참여해 성공 개최를 뒷받침했다. 또 서울에서 열린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에 많은 향우가 방문하도록 홍보할

등도 추진했다. 지난 1월 국회 앞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유치 축구 결의대회에는 강추위 속에도 300여명의 향우가 동참하는 등 고향 사랑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강진 출신인 강운성 광주전남시도민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0만원을 기부

하고, 전남 인재 육성 장학금 2천400만 원을 기탁 약속하는 등 고향 사랑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강 회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고향이 위기에 처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고향을 살리고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두 발 뺀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영원한 서포터즈인 광주전남시도민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공천 배제’ 민주 박노원 “총선 불출마”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국회의원 단수공천으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공천에서 배제된 박노원 예비후보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지지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권유했으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들이 탈당을 만류해왔다”며 “국민,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 발전과 정치 혁신을 꿈꿨던 지역민들을 떠올리면 눈물이 차오르고 지역민들의 간절함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지난 몇

주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위해 고심 끝에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가 이개호 의원·박노원 예비후보·이석형 예비후보 간 3인 경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이 의원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재정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